

탄산마그네슘 "내리막길"

94년 수요 11.8%감소 ... 엔고로 수요기업 부담 가중

탄산마그네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탄산마그네슘 수입량이 93년 2609톤에서 94년에는 11.8% 감소한 2333톤으로 국내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산마그네슘의 주수요처인 고무분야의 수요가 국내 신발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산마그네슘 수입현황단위: Kg, 1000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총량	2,835,551	2,609,166	2,333,065
금액	2,302	2,171	2,095

이에따라 우신화학 등 탄산마그네슘 생산기업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마그네슘은 고무, 파인세라믹스, 형광도료, 전자공업용 약품 등에 사용되나 생산이 어렵고 국내 시장규모가 협소해 생산기업들이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어렵고 점차 사양화되는 신발산업의 여파로 인해 생산기업의 가동중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탄산마그네슘은 품질면에서 균일하지 않아 저가의 저품질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산마그네슘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4년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일본이 2305톤(203만7000달러)으로 전체 탄산마그네슘 수입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이 2.7톤(5만7000달러)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엔화의 폭등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요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엔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탄산마그네슘 수요업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품질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탄산마그네슘 수입은 장기적으로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입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탄산마그네슘 가격은 일본산 BALL -TT기준으로 Kg당 950 960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5/29>